‘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후원 이어져

4월 13일, 주지실에서 전달식 개최
정관 대종사 문도 · 마하다도회 등
승·재가 후원 4월 총 4600여 만원
보운 스님, “스님 복지 위해 최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4월 13일 주지실에서 기초수행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기초수행지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승 · 재가의 후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4월에 총 4600여 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성금은 불국당 정관 대종사 문도 대표인 범산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이 3800여 만 원을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희사했다. 성금은 지난 3월 15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49재를 범어사에서 회향하면서, 정관 대종사의 포교 · 전법 정신을 받들고자 장례와 49재 후 모은 성금을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재가불자들의 희사도 이어졌다. 금정총림 범어사 마하다도회는 800만 원을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회향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범어사에서 봉행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당시 의전을 담당한 마하다도회에 지급된 진행경비 전액이다.

범어사는 4월 13일 주지실에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기초수행지원금 후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불국당 정관 대종사 문도 법열 스님은 “입적하신 정관 대종사 스님은 90년대 초 복지가 미흡하던 당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창립하시고 복지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시다. 이번 기금 전달식에서 큰스님의 정신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후원금은 큰스님 입적 후 영결식을 진행하고 모은 금액을 모두 복지기금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도 대표이신 범산 스님과 문도들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백영선 마하다도회 회장은 “범어사에서 진행된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회원들이 새벽에 나와 늦은 밤까지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저희 회원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복전(福田)을 일구는 수행이라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했다”며 “범어사 사중에서 지급된 행사 경비를 받고서 더 좋은 취지로 회향하기로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고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지 보운 스님은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이 담긴 뜻깊은 회향이며, 문도스님들께서 먼저 마음을 내주시고 범어사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회향해주셨다. 또 마하다도회는 구족계 산림 기간 동안 봉사하며 노력과 비용이 지출되었을텐데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스님들을 위한 복지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의료복지 등 노후 복지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 제도는 2023년 1월 15일 시작된 범어사 최초의 정기 승가지원제도이다. 범어사는 재적스님들 중 월보시를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스님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초수행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범어사 재적스님은 총 378명이며 기초수행지원금을 신청한 스님은 210여 명이다. 매월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청자격은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대표, 감원)가 아닌 스님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면 신청가능하다. 범어사 수사찰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은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법륜사(주지 각진), 선암사(주지 원타), 운수사(주지 범일), 장안사(주지 무관),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 7곳이다. 범어사는 매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적스님들에게 지원 현황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범어사 종무소와 우편 또는 종무소 이메일(beomeosa@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051)508-3122

통도사,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

42일 동안 영산전 가사당 지정
도편수 명천 스님 참여해 지도
오조가사 100 · 보살계가사 500


영축총림 통도사가 4월 9일 경내 설법전에서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9일 설법전에서 ‘계묘년 윤달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와 생전예수재를 함께 입재하고 경내 영산전에서 오조가사와 마니가사를 직접 제작하는 가사불사를 진행했다. 통도사는 42일 동안 영산전을 가사당으로 지정하고 도편수 명천 스님이 참여해 불자들에게 가사 짓는 법을 지도했다. 통도사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중 유일하게 가사당을 운영하는 사찰이다. 대가사는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하는 가사를 사용하고,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사당을 이 기간 동안 특별 운영한다. 불사기간 동안 통도사 가사당에서 불자들은 오조가사 100벌, 보살계가사 500벌을 제작했다.

회향법회는 먼저 이운식으로 진행됐다. 이운식은 가사당에서 설법전까지 가사를 이운하는 것이며, 이운 행렬에는 3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장관을 연출했다. 이운된 가사는 설법전 불단에 안치되었으며,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집전한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점안의식 불자들을 대신해 통도사 강원 학인 스님들이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등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렸다. 새 가사를 받은 스님들은 사부대중이 정성으로 올린 가사를 받아 이마에 정대하고 “훌륭하다. 해탈의 옷이여 더할 나위 없는 복전의(福田衣)”라며 “내가 지금 이 가사를 받아 머리에 이었으니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법회에서 통도사는 가사불사 공로자를 위한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가사불사대중을 지도한 도편수 명천 스님을 비롯해 편수 금강수 불자, 양공 선덕화, 보명화, 신심원, 미란, 보타행 불자 등 6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주지 현덕 스님이 주지 취임 후 사부대중에 처음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먼저 가사불사를 위해 노력한 불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스님은 “불사 기간 동안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가사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준 도편수 명천 스님과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도량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도반이 되어 함께 격려하는 화합의 도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연종학림, 이전 개원 및 점안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연종학림(주지 청명)이 4월 9일 법당에서 이전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연종학림은 개원법회를 통해 경전을 연구했던 연종학림 법당과 바즈라야나 명상센터를 통합운영하고 경전 교학 및 명상수행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났다. 또 준제보살 점안의식을 통해 진언밀교 수행의 수승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도성 스님은 “준제보살님의 준제라는 의미는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라며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리면 준제보살이 된다. 도량을 찾아 수행하고 진언 염송하면 준제를 굴리고 여의주를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견강암, ‘이웃과 함께하는 정나누기 만발공양’

지역민에 짜장면 800인 분 공양
사상구 보건소 의료봉사도 함께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4월 12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정(情)나누기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견강암은 매월 2 · 4주 수요일 고동바위공원 일원에서 지역 어르신 및 소외이웃을 위한 국수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특식으로 짜장면 800인 분을 마련해 공양을 대접했다.

만발공양 나눔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과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 회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불교계에는 많은 무료급식소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라지고 활동을 쉬는 경우를 보았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위축된 나눔 활동을 응원하고 봄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활력을 위해 특식으로 급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견강암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짜장면 만발공양에서는 특별히 부산 사상구 보건소가 동참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뇨 측정, 치매 예방 등 의료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함께 진행된 의료봉사는 사상구 보건소가 견강암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소식을 듣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먼저 동참을 청해왔다. 또 이번 짜장면 만발공양을 위해 중식당을 운영하는 대표가 직접 참여해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또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이 7년 동안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견강암 나눔봉사는 주지 향공 스님이 30여 년 전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으로 시작했다. 이후 16년 전 현재 부산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 개원한 후 국수만발공양을 이어왔다. 스님의 봉사에 함께하는 봉사회원들이 모여 ‘정각원’을 창립했고, ‘정각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발돋움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 회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라동 고동바위에서 무료급식을 진행 중이다. 무료급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 어르신 효잔치, 팥죽, 김장김치, 라면 등 음식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어려운 시기에도 500여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봉사, 78주년 개산대재 봉행



울산 약천산 오봉사(주지 혜원)가 4월 6일 경내에서 ‘78주년 개산대재 및 선덕여왕 추모봉향대재’를 봉행했다.〈사진〉

개산대재에는 회주 영현 스님, 주지 혜원 스님, 원성 스님, 능행 스님, 천도 스님을 비롯해 차영환 신도회장,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회의원, 김영철 의회의장, 김용주 변호사, 청명심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삼귀의 △육법공양 △타종 △공양의식 △축원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는 △차공양(다례) △창건유래 안내 △내빈소개 △제례행사 △장학금전달 △인사말 △축사, 3부는 축하무대 순으로 진행했다. 장학금은 유성욱(삼정초) 학생 외 6명에게 각 20만 원, 총 120만 원을 전달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78주년 개산대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영현 은사 스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도 선덕여왕의 덕을 기리며 국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파라미타, 신입생 환영 및 발대식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보운, 이하 부산파라미타)가 4월 8일 범어사 일대에서 신입생 환영대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발대식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 범어사 홍보과장 벽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고문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재 보운 스님은 대독을 통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미래 희망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이라며 “불교는 여러분들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산이자 등불이 될 것이다. 마음자리가 깊은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새롭게 입회한 학생 여러분들이 파라미타 활동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며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시다.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회 가야의 숨결 녹색걷기명상 개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이 4월 8일 김해 수릉원 및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제4회 가야의 숨결 녹색걷기명상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걷기 명상은 가야국제명상센터와 인도 사티 인스티튜트가 함께했으며,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경남포교사단 단원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걷기명상 방법 안내 및 이사장 도명 스님의 선무도 시범, 대성동고분군 걷기,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도명 스님은 “자비명상 및 호흡명상 등 명상문화가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명상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적용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무심사, 수륙용왕 방생대재 봉행



경남 창녕 무심사(주지 무심)가 4월 9일 대웅보전 및 낙동강 일대에서 제15회 수륙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를 통해 무심사는 국가와 지구촌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쟁 종식으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방생법회에는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 회심사 법조 스님, 염불선원 진암 스님, 봉암사 애심 스님, 국불사 무천 스님, 우포정사 대영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심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복덕을 얻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방생을 통해 자비심을 증장시키고 생활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방하착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참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 출발!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교장 마가)가 4월 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명상 안내 프로그램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心봤다!’를 시작했다.〈사진〉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강백을 초대해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명상학교 프로그램은 재가자 및 일반시민 60여 명의 참가자가 동참했다.

첫 강의에서 마가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며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삶의 변화를 체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석태사 주지 만초 스님, 보디야나 선원장 혜안 스님,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 스님 등 11명의 스님 및 불자가수가 명상에 대해 안내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